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농업부문 국제협력전략(CPSA) 수립을 위한 몽골 현지조사 및 관련부처 협의를 위한 출장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농업부문 국제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수립을 위한 몽골 관계 부처 협의
- 몽골 중장기 개발전략 및 농업부문 중장기 개발전략 관련 정보 수집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자: 허 장 연구위원
-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기간
허 장	2011. 6. 12 ~ 6. 17 (4박 6일)

- 출장지: 몽골 울란바타르

3. 주요 내용

- 몽골 중장기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부문 개발전략에 관한 식품농업경공업부, FAO 등 관계 부처, 국제기구의 추진 현황 조사
- 농업부문 주요 작목별 정책 추진 현황 자료 수집
- 향후 양국간 CPS 관련 담당자 선정 및 관련 부처 네트워크 구축
- 향후 CPS 추진 일정에 따른 업무 협조 논의
- 몽골 주요 농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논의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6.12 (일)	인 천	울란바타르	-	◦출국
2	6.13 (월)	체	재	◦식품농업경공업부 국제협력국 ◦식품농업경공업부 전략계획 및 정책국 ◦FAO	◦CPSA 추진배경 및 역할 설명, CPSA 수립협조요개 발요청 분야 의견청취 ◦CPSA 추진배경 및 역할 설명 ◦FAO측의 대 몽골 원조사업의 방향 의견청취
3	6.14 (화)	체	재	◦KOICA ◦투멘 쿠이히 농장(울란바타르 시내 소재)	◦국제협력단의 대 몽골 추진사업 현황 및 농업분야 지원방향 의견청취 ◦농장현황 파악
4	6.15 (수)	체	재	◦식품농업경공업부 수의가축육성국 정부집행처 ◦JICA ◦식품농업경공업부 곡물생산정책집행조정국	◦국가축산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사업 현황파악 ◦일본측 주요 사업현황 파악 및 국별전략 수립여부 파악 ◦곡물분야 생산현황 및 주요 현안 파악
5	6.16 (목)	체	재	◦세계은행 몽골사무소	◦세계은행의 중점 지원분야와 농촌개발 관련 주요 사업 현황 파악
6	6.16-17 (목, 금)	울란바타르 (23:50)	인천(금) (03:50)		◦귀국

II. 주요 출장결과

□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 일시/장소 : 2011. 6. 13(월) 11:00~12:15 / 회의실

- 면담자 : Erdenejargal Tumurbaatar 과장, Batkhishig Oyundelger 담당자

○ 주요 내용

- 국가식량안보계획(NPFS)는 기존에 추진하던 “제3차 곡물재건운동(The 3rd Crop Rehabilitation Campaign, 2008~2011)”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1년 2월 이와 통합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수정, 발표하였음.

. 곡물재건운동은 밀 등 곡물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가령 밀 1톤 생산당 5만 투그릭 지불, 부가가치세 면제, 채소 및 감자 생산농가에 대한 15%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었음.

. 밀과 감자의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동북아시아로의 수출을 희망하면서 새롭게 내용을 수립함.

- 한국이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 가축위생 및 질병 진단 등 수의학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험실 등 장비지원과 역량강화 지원
- ② 채소와 과일 생산을 위한 온실 : 이 분야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음은 시설건축을 위한 장비조달에 한국업체가 선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음. 온실 건설시 중앙정부가 5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방 주민들로부터 많은 수요가 있음.
- ③ 소규모 농기계 : 농가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국의 소형 농기계는 매우 품질이 좋음.
- ④ 수자원 공급 : 음용수, 농업용수 등 공급을 위한 관정 굴착 등
- ⑤ 집약식 축산을 위한 시설과 사료 공급 등
- ⑥ 기술이전을 위한 훈련

⑦ 농산물 가공(가죽, 고무 등) 등 중소형 농기업체 육성

- 한국과 몽골 사이에 결성되어 있는 **한-몽 농업협력위원회** 개최시 제안된 협력사업을 참조로 할 것
- 이 밖에 농민들에게 **산자나무**(Sea buckthorn, 일명 비타민나무로 기름을 추출하여 화상치료, 피부보호에 사용) 재배를 장려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이는 소득증대와 사막화 방지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 열매 가공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 일시/장소 : 2011. 6. 13(월) 14:30~15:30 / 회의실

- 면담자 : Choi-Ish Lkhasuren 국장, Batkhishig Oyundelger 담당자

○ 주요 내용

- 동북아 지역에서의 식량공급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하여 밀과 감자 등 자급을 달성한 곡물의 수출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
 - . 자급을 위한 기술과 능력은 80% 정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함. 물론 몽골내 지역에 따라서는 자급을 이룩하지 못한 곳도 있고, 이를 위해 수송망 개선이 필요함.
 - . 수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수송(transportation)**이며, 그 외 저장, 위생 등과 관련된 것은 몽골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국가축산정책(National Livestock Policy)**”이 2010년 의회에서 승인받음.
 - . 축산업은 생산액이 전체 농산물 중 87%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력 인구 중 34.6%가 축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몽골 국가경제의 전통적이면서 기초적인 분야임.
- 농촌분야를 위한 계획서로 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가 기획하고 있는 “**농촌개발전략계획(Rural Development Strategic Plan)**”이 현재 제안서 초안 단계에 있음.

- 지난 주에 의회에서 **할호골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아직 공식화 단계는 아님). 그 내용은 몽골 국내의 기술에 기초하여 수출지향적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생산성 증가 이외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작물, 가령 채소와 과일(산자나무)에 대한 관심, 지원도 늘려가고 있음.
 - . 이는 생산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human diet)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한 것임.
- 축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목표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청정국 기준에 맞추므로써 깨끗한 축산물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6월에 “농산물 판매에 관한 법률(Agricultural Commodity Exchange Law)”이 제정되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임.
- 농촌인구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유목민의 사회화를 지향하고 있음.
 - . 작목반과 같은 **협동체(cooperative)**를 만들어서 소득 관련 활동은 모두 이 협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FAO 몽골사무소(FAO Representative Office)

○ 일시/장소 : 2011. 6. 13(월) 17:00~17:50 / 회의실

- 면담자 : Oyundelger Nataa 부대표

○ 주요 내용

- 몽골에 FAO 사무소가 개소된 것은 2년 되었음.
 - .향후 4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별 우선분야 지원 프레임워크 (Country Priority Framework) 수립 작업에 곧 착수하게 되며, 이는 2011년 말에 완성될 예정임.
- 몽골의 NFSP는 FAO의 지원으로 만들었음. 그러나 실제 내용은 몽골 전문 컨설턴트들에 의하여 구성되어 보다 몽골의 사정과 문제점들을 잘 반영하였다고 봄.
- 몽골은 그동안 농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꽤 늘려 그 성과를 보고

있음.

- . 농업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2007~08년도의 경우 5,000 혹은 6,000만 달러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3배에 가까운 1억 5,000만 달러를 배정하였음.
-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농산물과 경쟁 하에 판매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음.
 - . 이를 위하여 몽골의 특수성(uniqueness)을 잘 발현할 수 있는 방법, 즉 깨끗한 농산물,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함.
 - . 시장에서의 판매가 늘게 되면 농업의 성장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봄.
- 밀 등의 자급달성은 몽골 정부의 노력의 결과임.
 - . 2008년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 등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특히 밀 농가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면서 중대형 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
 - . 아울러 가즈오르트의 캐나다 농장과 같이 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게 됨.
 - . 이를 통해 몽골 정부는 국가의 지원 여하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됨.
- FAO는 소규모 유목민(small herders), 소규모 채소재배 농가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 한국도 이들 소농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함.
 - . 세부적으로는 특히 유목민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
 - * World Bank에서 축산분야와 관련한 연구를 한 것을 볼 필요가 있음.
 - . 채소재배를 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온실을 지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며, 이것이 곧바로 이들의 생계를 위한 사업(business)에 직접 연계되지 않더라도, 유목과는 또다른 유형의 영농, 즉 영농의 다양화(diversification)와 영양개선(nutrition)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임.

- 위생적이고 HACCP 기준에 맞는 소규모 육류가공을 위한 교육 훈련도 성과가 큰 분야임.
-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축산업 분야에서 공동체 협동조합 (community cooperative)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 한국 새마을운동이 몽골과 같은 유목민 사회에 적용되기는 힘들지만 이 운동의 협동정신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2013년부터 공동체 협동조합에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함.
 - . 가령 유목민이 생산한 카시미르를 이와 같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가공업자에게 판매한다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임.
- 농업분야를 포함한 몽골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nso.mn)을 참조하기 바람.

□ 국제협력단(KOICA)

○ 일시/장소 : 2011. 6. 14(화) 11:00~11:45 / 회의실

- 면담자 : 이동구 소장

○ 주요 내용

-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바, 조직간의 체계를 통합 혹은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두더라도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 가령 몽골지역의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 조림 사업이 산림청, 지자체, 유한킴벌리나 대한항공 등 기업체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KOICA가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행했던 사업들 다양함.
 - . 울란바타르, 다르한 등 대도시 주변에 비닐온실 건설을 지원함.
 - .. 비닐온실 관련하여 강광균 박사 등이 시설과채류 재배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몽골 식품농업 경공업부에 제시한 바 있음.

- . 전국 곳곳에 관정 개발
- . 축산 관련해서 식품안전, 가축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퇴치, 3단계에 걸친 중앙수의연구소(PSL 3) 건설 지원 등
- . 할호골 지역의 동몽골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범농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 .. 현재 몽골이 밀을 자급한다고 하나 이는 식용에 국한된 것이고 보드카 등 주정용과 종자용은 아직 부족함.
- .. 밀에 대한 무관개 농사를 비롯, 경종과 축산을 연결하는 복합영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이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함.,
- 몽골정부는 밀을 한국 등지에 수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구매선의 변경 문제, 중국 혹은 러시아 등 경유국가와의 협의 문제, 기타 정치적 협의 등에 대한 선결과제가 있음.

□ 비닐하우스 농장 방문

- 일시/장소 : 2011. 6. 14(화) 17:00~17:45 / 울란바타르 인근 Tumen Cuich 농장
- 면담자 : Oyun Chimeg 농장주
- 주요 내용
- KOICA의 지원으로 2009년 6월 12개 동 완공
- 농장주 이외에 물 관리, 비닐하우스 개폐 관리, 작물 재배, 경비 등 4명의 관리인이 있음.
- 건축비용은 농장주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임. 재배방법 등에 관하여 약 8개월간 교육을 실시한 전문강사가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함.
- 2010년에는 토마토, 상추, 배추, 브로콜리, 오이, 배추, 고추, 가지 등 다양하게 재배하였고, 2011년에는 방울토마토와 딸기만 재배
- . 이는 상추, 배추 등은 중국산 등이 수입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

- 판매는 시내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 하고 있음.
 . 중국산에 비하여 약 1.5~2배 가량 비싸게 판매
- 전기 열풍기 작동에 따른 전기요금과 석탄 구입 비용, 토지 임차료, 직원 임금이 비용으로 지출됨.
- 여름이라도 야간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비닐하우스는 3개월 정도(6월~8월) 재배가 가능하나, KOICA 지원 비닐하우스는 열풍기를 설치함으로써 8개월 간 재배가 가능함.
- 월 2회 정도, 회당 25~30명의 농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
 . MOFALI는 지방정부를 통해, 울란바타르 시 정부는 시내 구청을 통해 견학 희망 농민을 소집하여 교육생을 보내고 있음.
- 한편 농장주는 바로 옆에 자신이 투자한 유리온실(상추, 배추, 고추 등 재배중)도 소유하고 있는 대농임.



□ 식품농업경공업부 수의가축육성국 정부집행처(Government Implementation Agency)

○ 일시/장소 : 2011. 6. 15(수) 10:45~11:30 / 회의장

- 면담자 : Damdindorj Puntsagdorj 국장

○ 주요 내용

- 수의가축육성국의 정부집행처는 가축 질병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식품농업경공업부 산하기관임.

- “국가축산정책(National Livestock Policy)”의 실행계획서는 없음.
이 정책은 앞으로 10년의 기간을 포함하며 현재 계획서는 1단계 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329개 솜마다 가축질병 수의사, 가축 감별사, 우물이나 건초 등 담당하는 농사관리사 등 3명씩을 배치하고 100개 솜에는 차량을 1대씩 배치하였음. 이는 모두 몽골 예산으로 하였음.
. 이들 요원에 대해서는 20일간 교육 실시
- 21개 아이막을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축질병, 진단을 담당하는 연구소를 설치, 이를 위한 차량을 1대씩 배치함.
- 소와 말에 대해서는 이표를 부착하고 양, 염소 등 소가축에 대한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음.
- 말에 대한 백신의 대량생산에 들어갔음.
- 2010년 러시아가 몽골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 돈으로 소독차량, 조류독감·구제역 관련 약품을 구입하였음.
- 스위스 개발협력처(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의 축산 프로젝트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사업을 하고 있음.
- 2010년 국회에서 육류, 가축, 털, 캐시미어 등에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였음.
. 3,000억 투그릭의 자금을 투입하여 축산물(우유, 가축, 털 등) 가공공장에 대출을 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2011년 1월 현재 3,200만 마리의 가축(소, 말, 양, 염소, 야크, 낙타 등)이 있는 것으로 추산(돼지, 닭, 오리 제외)되며, 봄에 새끼가 1,300만 마리가 낳게 되는 것으로 보면 모두 4,50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축산분야 쪽에서의 협력 수요는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사료 공급과 물 부족지역에 대한 관수 장비 보급임.
. 21개 아이막마다 우물 파는 장비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임.

□ 일본 국제협력단(JICA)

○ 일시/장소 : 2011. 6. 15(수) 14:30~15:00 / 회의장

- 면담자 : Minami Kazue 소장

○ 주요 내용

- 몽골 사무소는 1997년 개소하여 현재 12명의 직원이 있고 80명이 자원봉사자가 있음.
- 몽골 사무소는 2004년 11월에 중장기 지원전략(Japan's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Mongolia)을 수립하였고 이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내 사정으로 2011년 말 정도에 새로운 전략서가 나올 것임.
 - . 현재의 전략서는 일본어 판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사무소에서 초안을 만들고 본부가 외무성과 협의하여 최종 전략서가 작성됨.
 - . 예상되는 핵심 지원대상 분야는 광업개발, 산업 다양화, 빈곤 감축, 인프라 개발 등임.
- JICA는 몽골의 산업 다양화 차원, 그리고 고용효과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업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음.
- 곡물과 축산 분야에서 국립농업기술센터(National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의 기술보급 체계 수립을 위하여 1단계(2006~09)를 거쳐 2단계(2010~12) 기술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효율성을 위하여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한 북부 6개 아이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식품농업경공업부 곡물생산정책집행조정국(Crop Produc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Department)

○ 일시/장소 : 2011. 6. 15(수) 16:30~17:00 / 회의장

- 면담자 : Bayartulga 국장

○ 주요 내용

- 몽골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밀, 감자와 채소
 - . 밀 27만ha, 감자 13만 9,000ha, 채소 7,400ha
 - .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채소는 국내 수요의 53.7%를 충족하며, 2011년에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여기서 발생하는 40% 정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하여 원조가 필요함.
 - . 기후변화로 인하여 봄철의 기온이 더욱 떨어지는 경향임. 따라서 채소재배를 위한 온실 보급이 과제로 되어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 몽골사무소

○ 일시/장소 : 2011. 6. 16(수) 11:30~12:20 / 회의장

- 면담자 : 농촌개발 및 환경담당자

○ 주요 내용

- WB는 2004~2008년을 포함하는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한 적이 있음.
 - . 핵심 추진분야는 ① 울란바타르 도시개발, ② 농촌 취약계층을 감축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농촌개발, ③ 광업부문 투자환경 개선 등 3개
- 2009년 경제침체에 따라 새로 CAS를 작성하지 않고 잠정전략(interim strategy)을 수립
 - . 광업 생산물의 가격저하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전략만을 수립하여 배분
- 새로운 지원전략은 국별협력전략(CPS)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2011년 10월 경 만들어질 예정이며, 핵심 추진분야는 기본적으로 동일함.
- 농촌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2개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중임.
 - ① 이른바 SLP (Sustainable Livelihood Project) : 모든 군(soum)

마다 전국적으로 약간의 자금을 지원 *세부내용은 미상

- ② 가축보험 프로그램 : 글로벌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에서 지원하며 한국도 이 기금에 출연하였음. 자연재해(Dzud)로 인한 유목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직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 중이어서 금년말에 시작될 예정임.

- 유목민 협동조합체(cooperative)에 대한 의견

- . 협동조합과 같은 법적 조직체(legal entity)는 아직 없으나, 이른바 “유목민 집단체(Herders Group)”라는, 법적으로 확립된 조직은 아닌 집단체는 있음. “국가축산정책” 문서에는 협동조합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음.
- . 협동조합을 조직하려면 ① 조합 설립의 지리적 위치, ② 우유 가공업자 등 민간업체의 참여 방안, ③ 유통, 판매 등 시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결정이 필요
- . 문제로는 유목민이 사육 가축 수를 늘릴 경우 초지확보, 물, 자연자원 유지 등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초지의 유지와 적정 사육 가축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함.
- . 위 SLP 사업의 하위 시범사업의 하나로 “초지 사용 수수료 (pasture use fee)” 사업이 있음.

초지 사용 수수료 사업

유목민 초지사용자 집단(herder users' group)을 조직하여 각 집단마다 10호의 유목민 가구가 가입함. 양 1마리 당 100Tg을 내면 SLP 사업에서 75Tg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175Tg이 형성되며, 이를 모아 “초지 위험관리 기금(Pasture Risk Management Fund)”으로 조성함. 이 역시 사육 가축수가 너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의 가축수를 상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가령 양 200마리를 상한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수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 초지 관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함.